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임양미*¹⁾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Lim, Yang-Mi*¹⁾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v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The subjects were 639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firstly poor, the secondary poor, and the thirdly poor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KCYP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were influenced by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teacher relationships in order and the specific variables enhancing adolescents' self-resilience were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peers, trust with peers, parents' love, reasonable explanation, supervision, and teacher-adolescents' friendly relationships. Secondly, the poor adolescents' self-esteem were influenced b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the quality of teacher relationships in order and the specific variables enhancing adolescents' self-esteem were parents' love, supervision, inconsistency, senses of non-alienation among peers,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peers, trust with peers, and teacher-adolescents' friendly relationships. Finally, the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welfare programs targeting poor adolescents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Key words: 빈곤가정 청소년(poor adolescents),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과업이 요구되고 제 2차 성징의 출현으로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타인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Kim, 2009). 특히 청소년기의 환경요인 중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73,627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4.1%이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평균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은 10.6%이다. 특히 빈곤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2011년 상대빈곤율은 14.9%로 2003년 13.1%에 비해 1.8% 증가하였다(Kim, Kim, Woo, & Lee,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중 빈곤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경향은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한 연구들(Goodsby, 2007; Ha & Kang, 2012; McLoyd, 1998; Seo, 2002)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빈곤가정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반되는 교육적 자극의 결여, 역기능적 가족관계, 유해한 주변환경의 노출 등으로 인해 폭력 및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빈곤가정 청소년이 모두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발달을 조장하는 보호요인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들(Borman & Overman, 2004; Juras, 2004; Kim, 2009; Park & Shim, 2012; Schoon & Bynner, 2003)을 통해 빈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사회활동 참여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조장하는 보호요인 중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에 비해 빈곤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Juras, 2004).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소재 등 심리적 요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Choi, Kwon, & Lee, 2004; Choi & Lee, 2006; Kim, 2009)이 수행되어졌다.

한편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조장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다(Hwang & Kim, 2011; Kim, 2009).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관련되나 개념상 차이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시킴으로써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인지적 능력이 강조되는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Garmezy, 1991; Rutter, 1985).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 및 감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Coopersmith, 1967), 다양한 발달적 변화가 발생하고 학업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청소년기 또는 빈곤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표적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어져 왔다(Choi, Kwon, & Lee, 2004).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변화되는 속성을 지닌다. 자아탄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증감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Dyer & McGuinness, 1996).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거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변화가 발생한다(Chung, 2007).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별과 같은 속성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An & Choi, 2012;

Hwang & Kim, 2011; Jeon & Yi, 2009),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인 속성이 결정된다(Coopersmith, 1967). 특히 아동기에 비해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된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타인은 부모, 교사, 또래로 대별된다(Dubow & Ulman, 1989; Han, 199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가족특성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반면 또래 및 교사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전반적인 지원정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또래 및 교사의 어떠한 관계의 속성이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노출하며 교감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을 보인다(Kim & Lee, 2010). 빈곤가정 청소년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에 관심을 덜 가지고 학대 및 방임 등 부정적 양육방식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래로부터 정서적 위안을 얻고자하는 욕구가 강해짐으로써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의 어떠한 속성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탄력성 또는 자아존중감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 또래 또는 교사가 미치는 단편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여 각각에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록 Jung과 Lim(2011)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진강성과 담임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순으로 제시하였으나 가족을 제외한 교사 및 또래의 지지는 전반적인 지원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함으로써 교사 및 친구의

어떠한 관계적 속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Jeon과 Yi(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룹홈에서 양육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또래의 지지, 교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순으로 제시하였으나 Jung과 Lim(2011)의 연구와 유사하게 친구 및 교사의 어떠한 관계적 속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써 빈곤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관계의 구체적 속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사회적 및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986년에서 1995년까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 및 교사, 또래관계의 구체적 속성을 규명하는 시도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계획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빈곤가정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현황과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또래,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복지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부모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또래와 교사는 또래 및 교사관계의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와 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와 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된다(Lee, Lim, Park, & Jeong, 2008).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를 토대로 산출한다(Kim, 2006).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곤란을 결정하는 준거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부족감과 불평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곤란계층 또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and Labor, 2013). 기초생활수급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이 100%이하인 계층으로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은 욕구소득이 각각 120%이하, 150%이하에 속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계층에 비해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MK

Business News, 2013).

빈곤가정 청소년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 빈곤에 대한 기준과 정의에 있어 차이가 있다. 빈곤을 다룬 많은 연구들(Chang & Chung, 2012; Kim & Yu, 2012; Ku, 2003; Oh & Moon, 2006)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을 탐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몇몇 연구자들(Kim, 2006; Kwon, 2007; Lee, Bae, Lee, Choi, & Lee, 2004)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계층 외, 차상위계층을 빈곤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계층과 가구소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이 미약하여 여전히 빈곤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보완하고자 차상위계층을 빈곤층에 포함하고 있다(Kim, 2006).

지금까지 빈곤 연구 및 정책에 우선시된 개념은 절대적 빈곤이었으나 향후 복지정책방향은 상대적 빈곤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는 최저생계비로 대변되는 절대적 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향후 상대적 빈곤 관점을 채택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Laboratory News, 2013).

2. 빈곤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들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다. 즉, 빈곤가정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심리적 박탈감을 경험함으로써 폭력, 공격적 행동,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부적응, 비행(Ha & Kang, 2012) 및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Goodsby, 2007; McLoyd, 1998)를 나타낸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가족과정이론(family process theory),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통해 설명된다(Chang & Chung, 2012; Ha & Kang, 2012). 인적자본이론은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교육적 자극의 결여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의 경우 의식주에 소요되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청소년의 교육투자의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이 저하된다(Ku, 2003). 또한 가족과정이론은 빈곤이 자녀의 발달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Brody et al., 1994; Lee & Lee, 2011; Park, Chung, & Ku, 2006) 및 가족관계(Vanderwater & Landsford, 2005)를 제시한다. 즉, 가족의 빈곤은 가족구성원 간의 역기능적인 관계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사회해체이론은 빈곤지역의 경우 주민유대나 비공식적 사회 통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기능수준이 낮아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와 폭력수준이 높다고 설명한다(Kang, 2010; Kim, 2010).

반면 빈곤이라는 동일한 위험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양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있으며,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발달을 조장하는 요인은 보호요인으로 명명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키는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특성들로 정의된다(Garmezy, 1991; Rutter, 1985). 선행연구들을 통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소재, 자기수용,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Borman & Overman, 2004; Juras, 2004; Kim, 2008, 2009; Kwon, 2007; Lee, Park, Kim, Chang, & Auh, 2009; Park & Shim, 2012; Schoon & Bynner, 2003) 등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애정과 적절한 감독,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응집력,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사회적 활동참여(Kim, 2009; Oh, Kim, Do, & Eoh, 2005; Park & Shim, 2012)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빈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빈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빈곤의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보호요인을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Kim, 2011)이 제기됨으로써 향후 빈곤의

보호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3. 빈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의 질

1)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문제상황에 처한 개인이 가진 심리적 자원으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빈곤, 학대, 가족해체 등의 환경적 역경이 있는 경우(Lee et al., 2009) 또는 학업, 부모의 기대, 역할의 변화 등으로 다른 시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기(Jung & Lim, 2011)에 더욱 요구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능력이 우수하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여도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다(Shin & Khu, 2001).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을 잘하며(Hwang & Kim, 2011; Johnson, Bromley, & McGeoch, 2005) 이혼 및 빈곤 등의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Park & Shim, 20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빈곤가정 청소년이 빈곤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서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거나(Cole et al., 2001) 자아존중감이 변화되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청소년기 초기가 대표적이다. 청소년기 초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입학,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 조작기 사고의 발달 등 발달 및 환경상의 변화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Chung, 2007). 따라서 발달특성상 변화가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가정의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이 추가될 경우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Kim, 2003),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Kim & Kim, 2000) 성취동기 수준이 높다(Hong & Doh, 2002).

2) 빈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의 질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부모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가족의 응집성,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었다(Kwon & Lee, 2003; Nam & Kim, 2003). 또한 부모가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하며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경우 자녀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Kang, 2003; Kim & Park, 2001). 특히 Kagitcibasit(1996)는 아시아 문화권의 청소년이 서구 문화권과 달리 부모가 적절히 감독할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 교사와 또래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부모변인을 다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빈곤 및 비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Choi & Kim, 2003; Doh & Kim, 2006; Jeon & Yi, 2009; Kang, 2005; Kim, 2002, 2008; Oh et al., 2005)에서 교사 및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자신의 또래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Choi & Kim, 2003)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Doh & Kim, 2006; Kim, 2002). 또한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8)에서도 또래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그룹홈에서 양육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전반적인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Jeon & Yi, 2009). 또래에 비해 연구 수는 적으나, 교사 역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몇몇 연구들(Jeon & Yi, 2009; Jung & Lim, 2011; Kim, 2008)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교사의 전반적인 지지정

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부모, 또래 및 교사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비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또는 자아존중감 중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 또래 또는 교사변인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모변인을 제외한 또래 및 교사의 경우 전반적인 지지수준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또래 및 교사관계의 어떠한 속성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2010년에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 KCYPS)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빈곤가정의 자녀 639명(남자: 315명, 여자: 324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을 중학교 1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은 청소년기 초기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입학 및 사춘기의 시작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아동기에 비해 부모 외, 교사 및 또래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발달적으로 변화가 많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에 빈곤이라는 부가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발달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자료수집이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3개의 패널을 대상으로 7년 동안 매년 1회씩 개인의 성장·발달(신체, 인지, 사회, 정서)과 개인을 둘러싼 환

경(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 을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Korean Child Youth Data Archive, 2013). 현재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는 2차년도 자료(2010년, 2011년)를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매년 조사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변인 중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속성을 보이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2~3년 주기별로 측정되며 신체발달과 같이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정도가 높은 변인은 매년 측정되는 특징이 있다(KCYPS User Guid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교사변인에 대한 자료가 모두 포함된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대상인 빈곤가정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 생계 곤란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

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 해당 가구원 월별 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이하, 120%이하, 150%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최저생계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수집된 2010년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해당금액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빈곤가정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 가정의 소득계층을 알아본 결과 기초생활수급계층(49.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차차상위계층(29.9%), 차상위계층(21.0%) 순이었다. 또한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62.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20.3%), 한조부모 및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10.0%)이 많았다. 특히 한부모 가정 중 편모가정은 67.6%로 편부가정에 비해 더 많았다. 전체 연구대상 가정 중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는 75.8%이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56.2%이었으며 부모 외, 다른 양육자(조부모)가 취업한 경우는 3가정에 불과하였다. 특히 추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families(n = 639)

Categories		Frequency (%)	
Family income bracket	The firstly poor families	314	(49.1)
	The secondary poor families	134	(21.0)
	The thirdly poor families	191	(29.9)
	Totals	639	(100.0)
Family composition	Dual parents + children	397	(62.1)
	Single parents + children	130	(20.3)
	Single grand parents + children	16	(2.5)
	Single grand parents + dual parents + children	64	(10.0)
	Single grand parents + single parents + children	32	(5.0)
Totals	639	(100.0)	
Employ Status of rearer (multiple-responses)	Father employment	485	(75.8)
	Mother employment	359	(56.2)
	Other caregiver(grand-parents) employment	3	(0.5)
Fathers' education	Less than the graduation of middle school	47	(8.9)
	Less than the graduation of high school	311	(59.0)
	Less than the graduation of college	61	(11.6)
	Less than the graduation of university	89	(16.9)
	Less than the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19	(3.6)
Totals	527	(100.0)	
Mothers' education	Less than the graduation of middle school	43	(7.7)
	Less than the graduation of high school	399	(71.3)
	Less than the graduation of college	47	(8.4)
	Less than the graduation of university	67	(12.0)
	Less than the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4	(0.7)
Totals	560	(100.0)	

가분석 결과 양부모가 있는 가정 중 아버지가 취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92.2%)이었으며 한부모 가정 중 편모가정의 경우 86.4%, 편부가정의 경우 85.7%가 취업 중이었다. 취업 중인 아버지는 임금/봉급 근로자인 경우(55.7%)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26.9%)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역시 임금/봉급 근로자인 경우(41.0%)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8.3%)가 가장 많았다. 조손가정 중 조부모가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의 유형은 모두 자영업자이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각각 59.0%, 71.3%로 가장 많았으며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학력은 모두 중졸이하 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자아탄력성

본 연구대상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u와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2) 자아존중감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 재인용)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빈안한 도구(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2000)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1,3,4,7,8,10번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으며 나머

지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5이었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빈곤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구체적으로 Huh(1999)가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중 선행연구(Kagitcibasit, 1996; Kang, 2005; Kim & Park, 2001; Kwon & Lee, 2003; Nam & Kim, 2003)를 통해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 합리적 설명(4문항)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하위척도의 경우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으며 비밀관성 하위척도는 그대로 채점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점수범위는 감독 하위척도의 경우 3~12점, 애정 하위척도의 경우 4~16점, 비밀관성 하위척도의 경우 3~12점, 합리적 설명 하위척도의 경우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감독 및 애정, 일관성 수준이 높으며 합리적 설명을 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감독 하위척도 .75, 애정 하위척도 .82, 비밀관성 하위척도 .59, 합리적 설명 하위척도 .76이었다.

4) 또래관계의 질

빈곤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 재인용)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 총 3개의 하위척도(Hwang, 2010),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비소외감(3문항)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의사소통 및 신뢰, 비소외감 하위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점수범위는 모두 3~12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수준이 높고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의사소통 하위척도 .75, 신뢰 하위척도 .75, 비소외감 하위척도 .60이었다.

5) 교사관계의 질

빈곤가정 청소년의 교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Min(1991, 재인용)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Lee, 2011) 중 교사관계 하위척도(5문항)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하위척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교사와의 관계 점수범위는 모두 5~20점 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교사와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관계의 질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및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학생 자료 중 빈곤가정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엑셀과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가구원 월별 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이하(기초생활수급층), 120%이하(차상위계층), 150%이하(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을 추출하였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성별, 가족배경,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한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 질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우선 본 연구에서 선택한 독립변인 외, 선행연구들(An & Choi, 2012; Hwang & Kim, 2011; Jeon & Yi, 2009)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청소년의 성별을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청소년의 성별은 가외변인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성별의 영향력을 회귀분석 1단계에서 통제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청소년 성별의 경우 명목변인이므로, 더미 변인(dummy variables)으로 처리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1, 여자의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2단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3단계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을, 4단계에서는 교사관계의 질(교사와 우호적 관계)을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측정된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연구문제 1,2에 대한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또래관계의 질(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 교사관계의 질(교사와 우호적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40.3이며 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로 전환하면 2.9로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의 평균 역시 28.6(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9)로 자아존중감은 높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의 평균은 각각 9.2(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3.1), 11.7(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9), 8.3(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8), 8.0(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7)으로 문항평균 점수를 고려해 볼 때, 대체로 부모의 감독 및 애정, 합리적 설명, 일관성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n = 639)

Statistics	Variables	Score Range	Total score means(SD)	Item Score means(SD)
	Adolescents' self-resilience	18~56	40.3(6.07)	2.9(0.43)
	Adolescents' self-esteem	15~40	28.6(5.12)	2.9(0.51)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arents' supervision	3~12	9.2(1.98)	3.1(0.66)
	Parents' love	4~16	11.7(2.56)	2.9(0.85)
	Parents' resonable explanation	4~16	8.3(2.03)	2.8(0.67)
	Parents' inconsistency	3~12	8.0(1.96)	2.7(0.65)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3~12	8.5(1.73)	2.8(0.57)
	Trust	3~12	8.8(1.89)	3.0(0.62)
	Sense of non-alienation	3~12	8.9(1.88)	3.0(0.62)
The quality of teacher relationships	Teacher-adolescents' friendly relationship	5~20	13.3(3.29)	2.6(0.65)

정도가 높았다. 또한 또래관계의 경우 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 역시 평균이 각각 8.5(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8), 8.8(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3.0), 8.9(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3.0)로 대체로 높은 수준인 반면 교사와 우호적 관계의 평균은 13.3(4점 척도 문항평균 점수 2.6)으로 부모, 또래변인의 문항평균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 질의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빈곤 가정 청소년과 추가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가정의 월별소득이 최저생계비로 나는 비율이 150%초과된 경우를 추출해서 본 연구대상인 빈곤가정 청소년과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 질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탄력성($t = -2.36, p < .05$)과 자아존중감($t = -3.19, p < .01$), 부모의 감독($t = -4.69, p < .001$), 부모의 애정($t = -3.44, p < .01$), 부모의 합리적 설명($t = -2.52, p < .05$), 또래와의 의사소통($t = -3.43, p < .01$), 또래에 대한 신뢰($t = -3.74, p < .001$)에 있어 빈곤가정 청소년의 점수가 빈곤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고 부모가 방임을 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또래 및 교사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들(Goodsby, 2007; Kang, 2005; Kim & Park, 2001; McLoyd, 1998)의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그러나 빈곤가정 청소년이 빈곤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빈곤여부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Hwang과 Kim(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와 Hwang과 Kim(2011)의 빈곤가정에 대한 선정기준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빈곤가정은 차차상위계층 이하(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계층 포함)인 경우로 월 평균소득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 2인가구: 858,747원, 3인가구: 1,110,919원, 4인가구: 1,363,091원, 5인가구: 1,615,263원, 6인가구: 1,867,435원)로 나는 가구소득이 150%이하인 대상을 빈곤가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2인가구의 경우 1,288,120원, 3인가구의 경우 1,666,378원, 4인가구의 경우 2,044,636원, 5인가구의 경우 2,422,894원, 6인가구의 경우 2,801,152원 이하인 경우가 빈곤가정으로 선정됨으로써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Hwang과 Kim(2011)의 연구의 경우 가구원 수별 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하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선정함으로써 빈곤가정에 상대적 빈곤가정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가정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Chang & Chung, 2012; Kim, 2006, 2011; Ku, 2003; Kwon, 2007; Lee et al., 2004)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로 나는 가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상 빈곤계층으로 정의되는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한 본 연

구의 빈곤가정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Hwang과 Kim(2011)의 기준에 비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빈곤여부 자체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로 VIF 지수를 자주 사용하며, 이 값이 10을 넘는다면 보통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의 VIF 지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의 VIF 가 10미만(부모의 감독: 1.20, 부모의 애정: 1.96, 부모의 합리적 설명: 1.64, 부모의 비밀관성: 1.29, 또래와의 의사소통: 2.01, 또래에 대한 신뢰: 2.17, 또래로부터 비소외감: 1.36, 교사와 우호적 관계: 1.10)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 1)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 및 또래,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또래관계의 질(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 교사관계의 질(교사와 우호적 관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청소년의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 외, 가외변인으로 통제된 청소년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을 제외하고도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또래관계의 질(R^2 증가량 =.13), 부모의 양육태도(R^2 증가량 =.10), 교사관계의 질(R^2 증가량 =.0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또래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빈곤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량의 총 27%를 설명해 주었다.

Table 3.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1st step	2nd step	3rd step	4th step
		β	β	β	β
Adolescents' sex		-.07*	-.08*	-.01	-.02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arents' supervision		.10**	.08*	.08*
	Parents' love		.18***	.08*	.04
	Parents' reasonable explanation		.11**	.09*	.09*
	Parents' inconsistency		-.02	-.02	-.01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21***	.19***
	Trust			.20***	.19***
	Sense of non-alienation			.04	.04
The quality of teacher relationships	Teacher-adolescents' friendly relationship				.17***
	ΔR^2	.01*	.10***	.13***	.03***
	Total R^2			.27	
	F			25.26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 질의 경우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beta = .21$), 또래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beta = .20$),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의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8$), 부모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eta = .11$),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beta = .10$),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수록($\beta = .1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또래, 부모, 교사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건강성과 담임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순으로 제시한 Jung과 Lim(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또래의 영향력이 부모 및 교사 에 비해 높게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빈곤가정은 비빈곤가정에 비해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교육적 자극이 결여되며, 부정적 양육방식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빈곤가정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관심을 갖기 어려워(Chang & Chung, 2012) 자녀는 부모의 우울, 가정폭력 등 부적절한 가정환경에 노출된다(Oh et al., 2005). 또한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일반적 특성(Choi & Kim, 2003)을 고려해 볼 때, 빈곤가정 청소년은 또래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빈곤으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정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또래관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며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가정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정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정서적 지원을 또래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믿음을 획득함으로써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밀착된 관계는 일반적으로 또래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과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형성되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의 구체적 속성이 의사소통과 신뢰수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또래관계 다음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부모의 애정과 합리적 설명,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애정 및 감독,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Chang & Chung, 2012; Choi & Lee, 2006; Kagitcibasit, 1996; Kwon & Lee, 2003; Nam & Kim,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지도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Huh, 1999).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며 자녀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의 질은 부모와 또래에 비해 강도는 다소 미약했으나, 빈곤가정 청소년이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와 더불어 교사를 제시한 Jung과 Lim(2011)과 Hwang과 Kim(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상이 아닌 인생의 모델이 되며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빈곤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우울, 가정폭력 등 부적절한 가정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 밖 환경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Hwang & Kim, 2011; Jung & Lim, 2011)과 달리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비해 또래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제시됨에 따라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교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보다 의사소통과 신뢰에 바탕을 둔 친밀한 또래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의 질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및 또래,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또래관계의 질(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 교사관계의 질(교사와 우호적 관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청소년의 성별)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자아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한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고 분석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R^2 증가량 =.19), 또래관계의 질(R^2 증가량 =.13), 교사관계의 질(R^2 증가량 =.01) 순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총 34%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인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의 애정수준이 높을수록($\beta = .27$),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beta = .16$),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관성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또래관계 질의 경우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beta = .20$),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5$), 또래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beta = .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과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관성과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을 덜 느끼는 정도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와 우호적 관계를 가질수록($\beta = .11$)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은 앞서 제시된 자아탄력성에 대한 교사관계의 영향력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애정과 감독,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된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 자녀 행동에 대한 존중과 허용행동에 대한 일관성 있고 명백한 한

Table 4.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poor adolescents'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oor adolescents' self-esteem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4th step β
Adolescents' sex		-.05*	.04	.09*	.10**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arents' supervision		.16***	.14***	.14***
	Parents' love		.27***	.18***	.15***
	Parents' reasonable explanation		.03	.02	.02
	Parents' inconsistency		.13**	.08*	.08*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5**	.14**
	Trust			.13**	.13**
	Sense of non-alienation			.20***	.20***
The quality of teacher relationships	Teacher-adolescents' friendly relationship				.11**
	ΔR^2	.01*	.19***	.13***	.01*
	Total R^2		.34		
	F		33.67		

* p < .05, ** p < .01, *** p < .001

계설정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Kim과 Kim(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또래 역시 부모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또래관계 속성 중 또래로부터의 비소외감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의 또래수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비해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행동의 기준이 되며 또래로부터 수용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Walker & Greene, 1986). 즉, 일반적으로 자신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Kim, 2003)을 고려해 볼 때, 아동기에 비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수용 정도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중학교 시기인 15~16세에 최고조에 달하는 점(Coleman, 1978)을 고려해 볼 때, 유사한 시기에 해당되는 본 연구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빈곤가정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또래와 의사소통 및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또래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그 실례로, 부모의 가출 및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탐색한 Jeon과 Yi(2009)의 연구에서도 또래의 지지가 교사의 지지보다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제시된 자아탄력성과 동일하게 빈곤가정 청소년이 교사와 맺는 우호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교사변인이 부모와 또래변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으나 여전히 교사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보호요인으로 가족 및 또래, 교사의 지지를 보고한 Oh 외(2005)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빈곤가정(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추출하여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교사관계의 질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과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고려해야 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또래, 부모, 교사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았다.

둘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 또래, 교사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제시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가 제시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 또래, 교사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또래변인의 경우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교사와 우호적 관계를 가질수록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 및 또래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일생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자아존중감은 좀 더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다(Chung, 2007).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생애초기부터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지며 부모의 기본적인 양육태도는 안정적 경향을 보이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관계가 자아와 타인의 기본적인 인식과 감정을 형성하며 이러한 자아와 타인의 내적실행모델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Bowlby(1982, 재인용)의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Jeon, 2003)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유사하다. 즉, 초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후 접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나, 영유아기에 형성된 자아에 대한 감정은 전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개인이 갖는 자아존중감의 기초가 된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비해 좀 더 가변적이며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위험요인에 중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또래관계를 통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다(Hwang & Kim, 2011). 따라서 빈곤가정 청소년이 빈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교 및 학교 밖 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발달과업이 요구되고 하루 중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친밀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며 가정, 학교생활 및 학업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의 변인으로 선정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약가정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Jeon & Yi, 2009),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불화나 부모의 이혼, 빈곤 등 위험요인에 취약하다고 보고한(Bernard, 1991)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어렸을 때부터 ‘관계지향적인 사회화’로 부모 및 또래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자 청소년이 빈곤과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경우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현장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조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또래 및 교사, 부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학교현장에서는 교과활동 및 체험활동 시,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형태로 제공하는 기회를 늘이되,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를 활용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또래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의 솔리언(solian)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있다(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Homepage, 2013). 이 프로그램은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친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되며, 2011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199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173,677명의 또래상담자를 양성해냈으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또래상담자는 주로 일정수준의 성적(예: 30% 이내의 성적)과 또래 청소년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선정되며 일정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게된다. 따라서 교사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

을 잘하는 학생을 포레상담자로 활용하여 비슷한 문제를 가진 빈곤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포레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며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기 관리 및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빈곤가정 청소년은 이러한 포레상담자와 긴밀한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목 중 가정교과는 가정의 빈곤 및 이혼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영역에 친구관계와 자기관리 영역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포레와 교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청소년이 당면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정교과 내 체험활동 교수법을 통해 포레와 교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구체적으로, 가정교과 수업 시, 교사는 체험활동을 통해 학급 교우와 서로간의 장점을 교환하기, 학급 친구의 말에 반영적 경청과 공감하기 등의 대화기법을 실현해보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급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가정교과 영역에 청소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빈곤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예: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포레 및 부모에 비해 낮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당면 문제에 맞추어 적절한 맞춤형 지도방안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빈곤가정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개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Ministry of Education의 교육복지우선사업과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포레와 부모를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 및 감정통제 능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아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포레 및 부모와 함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갈등해결방법 탐색하기,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 등의 대화기법 등을 교육받는(Bak, Lee & Song, 2010)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조장하는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포레, 교사 변인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비밀관성 하위척도와 포레관계의 하위요인 중 비소외감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59, .60으로 다른 도구에 비해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대체로 .60이상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50 이상만 되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Kim & Huh, 201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교사관계의 질은 부모 및 포레에 비해 단편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으로, 포레관계의 경우 신뢰, 의사소통, 비소외감 등 여러 속성을 고려하였으나, 교사관계의 질은 교사와 우호적 관계 형성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교사변인을 보완하여 교사-청소년 관계의 속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빈곤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에 대한 부모, 또래 및 교사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 빈곤가정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관련된 변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n, Y.A., & Choi, J.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stress and stress copying: Focus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 141-165.
- Bak, B.G., Lee, S.Y., & Song, J.H. (2010).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enhancement program and testing its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61-82.
- Baumeister, R.F., Campbell, J.D., Krueger, J.I., & Vohs, K.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scales*. Seoul: Hakjisa.
- Ber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ortland, OR: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 Block, J.H., & Kremen, A.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rman, G.D., & Overman, L.T. (2004). Academic resilience in mathematics among poor and minority student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4(3), 177-195.
- Brody, G.H., Stoneman, Z., Flor, D., McCary, C., Hastings, L., & Conveyers, O. (1994). Financial resources, pa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parent co-caregiving, and early adolescent competence in rural two-parent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2), 590-605.
- Chang, H.L., & Chung, I. J. (2012). The developmental pathways from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7(9), 111-142.
- Choi, J.M., & Kim, M.R. (2003). The study of adolescents' friendships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73-394.
- Choi, Y.J., Kwon, H.J., & Lee, S.Y. (2004). Adjustment factors of po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531-550.
- Choi, Y.J., & Lee, S.Y. (2006). Internalization problem, delinquency, and protective factor in poor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89-113.
- Chung, I. J.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Coleman, J.C. (1978). Current contradictions in adolescent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1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Doh, H.S., & Kim, S.M. (2006).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4), 117-126.
- Dubow, E.F., & Ulman, D.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Dyer, J., & McGuinness, T.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y Nursing, 10*, 276-282.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9), 459-466.
- Goodsby, B.J. (2007). Poverty duration, maternal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8*(8), 1113-1134.
- Ha, T.J., & Kang, H.A. (2012). The effects of poverty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Testing mediator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parental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0*, 139-167.
- Han, M.H.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S.H., & Doh, H.S. (2002).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s related to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2), 145-157.
- Huh, M.Y. (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M.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Hwang, Y.J., & Kim, K.G. (2011). The factors influenced on middle-schoolers' resilience. *The 1st Korea Child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147-167*.
- Jeon, H. J. (2003). Mechanisms of mother-infa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The effects of attachment history with parent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infant attachment pattern and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159-174.
- Jeon, J. H., & Yi, S.C. (2009). Factors of social support that affect the self-esteem of group home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4), 5-28.
- Johnson, J.G., Bromley, E., & McGeoch, F.G. (2005). Role of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sonality traits(pp. 209-221). In J.M. Oldham, A.E.Skodol, & D.S. Bender(Eds.), *The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Jung, J. Y., & Lim, J.H. (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37-51.
- Juras, J. L. (2004). *Integrating models of risk and protection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USA.
- Kagitcibasit,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ang, H.A. (2010). Poverty, Risky Environments of Disadvantageous Neighborhood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3), 327-348.
- Kang, H.K. (2005). Family strengths and ego-resilience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93-102.
- Kang, S.K. (200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 of adolescents'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155-180.
- Kim, A.K. (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 Kim, G.H. (2006). Effects of poverty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3th Korea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801-828*.
- Kim, G. H. (2011).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adolescents' academic adjustmen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developmental phases. *The 1st Korea Child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323-334*.

- Kim, G. H., & Yu, M.A. (2012). Process analyses of effects family background on child health: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neglects. *The 2nd Korea Child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3-21.
- Kim, H.H. (2002).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implication of peer suppor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47-61.
- Kim, H.H., & Kim, K.Y.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linquency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5), 15-24.
- Kim, H.J., & Huh, J. (2013). *SPSS 21.0 statistical analysis and commentary*. Seoul: Topbooks.
- Kim, J. Y., & Lee, H.S. (2010). The effects of family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21-32.
- Kim, K.S., & Kim, H.K. (201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2), 143-170.
- Kim, M.G., Kim, T.W., Woo, S.H., & Lee, S.H. (2012).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2*.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G. (2006). The school resilience developmental model of poverty-sticken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additive, mediation, moderating effect models of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S.G.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on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0), 103-123.
- Kim, S. J. (2008). The impa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mpower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 in poverty: Focusing on children & adolescent without lunc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3), 327-348.
- Kim, Y.M. (2010). Neighborhood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among adolesc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6, 232-262.
- Kim, Y.Y., & Park, S.Y. (2001).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elf-esteem, material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1-13.
- Korean Child Youth Data Archive (2013).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of 2010. Retrieved April 1st, 2013 from <http://archive.nypi.re.kr/sub.asp?Mcode=C030000&BID=B36>.
- Korean Child Youth Data Archive (2013). KCYPS User Guide. Retrieved April 1st, 2013 from http://archive.nypi.re.kr/sub.asp?page=4&Mcode=C030000&bid=B36&search_m=&search_t=&classification=.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3). Solian Peer Counseling. Retrieved May 27th, 2013 from <https://www.kyci.or.kr/agecounsel/agecounsel01.asp>
- Ku, I.H. (2003).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adolescents'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2, 5-32.
- Kwon, H.S., & Lee, J.C. (2003). The influence of sexually abused adolescents' attribution style and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1), 22-31.
- Kwon, M. N. (2007). The influence of protective facto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Labortoday News (2013).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Park Geun Hye's government. Retrieved May 13th, 2013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14>.
- Lee, J.J. (2011). The relations amo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ternet addiction propensity,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participating in family sports leisure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moon University, Chungnam, Korea.
- Lee, J.S., & Lee, Y.G. (2011). The effect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 on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on of poverty, delinquency, the parent-child

- relationship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1), 65-88.
- Lee, K.S., Lim, H.J., Park, C.N., & Jeong, I. J. (2008). Effects of poverty on adolescents' grow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Lee, M.H., Bae, N.Y., Lee, G.S., Choi, K.C., & Lee, M.L. (2004). Problem in emotion and behavior presented by poverty children in their school activ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 Disorders*, 20(4), 311-334.
- Lee, S.H., Park, J.Y., Kim, Y.H., Chang, Y.E., & Auh, S.Y.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305-316.
-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abor (2013). The standards of poverty class. Retrieved May 8th, 2013 from <http://lifetips.tistory.com/69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The recipient statistic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2011*.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K Business News (2013). The secondary poor class. Retrieved May 8th,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73&docId=16826&mobile&categoryId=473>.
- Nam, Y.O., & Kim, J.H. (200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the alcoholic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199-221.
- Oh, K.J., Kim, E.Y., Do, R.M., & Eoh, Y.K. (2005). Pover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Exploration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1), 53-71.
- Oh, K.J., & Moon, K.J. (2006). Pover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59-76.
- Park, H.S., Chung, I. J., & Ku, I.H. (2006). Adult-role burde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2), 303-330.
- Park, S.J., & Shim, H.W.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y, self-regulated learning structurall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2), 113-135.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choon, I., & Bynner, J. (2003). Risk and resilience in the life cours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Youth Studies*, 6(1), 21-31.
- Seo, Y.K. (2002). A study on the primary factor which influences maladjusting of children in the poverty household and non-poverty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H.S., & Khu, B.Y. (2001). Stress Coping and Its Relationship to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189-225.
- Vanderwater, E.A., & Landsford, J.E. (2005). A family process model of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100-109.
- Walker, L.S., & Greene, J.W. (1986).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4), 315-332.
- You, S. K., & Shim, H.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 및 또래와 교사관계 질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연구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계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가정의 중학교 1학년 자녀들이었다. 조사도구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또래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관계의 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 부모의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교사와 우호적 관계가 제시되었다. 둘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 교사관계의 질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은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양육태도의 일관성, 또래로부터의 비소외감, 의사소통 및 신뢰, 교사와 우호적 관계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복지프로그램 방향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6월 06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6월 0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6월 28일